

효성, Spandex 메이저 도약 실패

동국무역 인수로 1위 등극 시도 ... 독과점 우려에 사업부 분리 의견도

효성과 FBH(First Bridge Holdings)컨소시엄과의 2파전으로 좁혀졌던 동국무역 매각 입찰에 FBH가 최종 우선인수대상자로 결정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관련기업들의 평가가 제각각이다.

효성이 우선인수대상자 선정에서 밀린 것은 무엇보다도 입찰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국무역 채권단 입장에서 희망하는 가격에 비해 효성이 제출한 가격이 턱없이 낮았다는 의견인 반면, 효성 입장에서는 제출한 입찰가격이 적정가라고 판단했으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까지 동국무역 인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효성은 3건의 M&A에서 효성중공업의 확대에 영향력이 큰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만일 효성이 우선인수대상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Spandex 부분만 분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찰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이 동국무역을 인수하게 되면 스판덱스 부분에서는 시장점유율이 65%에 달하게 되고 Invista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1위로 자리매김 하게 되기 때문에 효성 입장에서는 스판덱스 사업부가 군침도는 미끼가 될 수 있지만 동국무역의 노후한 Polyester(폴리에스터) 설비와 침체된 사업을 떠안기에는 위험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섬유기업 관계자는 “효성이 동국무역을 인수하게 됐다면 업계 1위도 좋지만 독과점의 우려가 더 커 FBH가 인수해 관리만 하고 동국무역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효성이 인수하는 것 보다는 동국무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이며 워크아웃 상태에서 2004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는 동국무역의 빠른 정상화를 돕는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섬유 관련기업 관계자는 우선인수대상자가 결정이 발표되기 전 “대한화섬처럼 Polyester 설비만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휴비스의 탄생처럼 폴리에스터 사업부만 분리해 재탄생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폴리에스터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3-4년 안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Down Stream 중 기능성 원사시장의 확장만 확실시 된다면 폴리에스터 산업은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큰 매력있는 산업”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Spandex 총생산량은 약 6만6000톤으로 효성이 2만1000톤, 동국무역은 1만9000톤을 생산하고 있어 효성의 동국무역 인수시 약 4만톤의 국내 생산능력을 갖게 되며, 중국에 소재한 효성의 1만4000톤 플랜트와 광동성 소재의 8000톤 플랜트와 더불어 2006년 완공예정인 동국무역의 광동성 1만8000톤 플랜트까지 더해져 총 4만톤의 중국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효성의 2003년 총 매출액 4조2186억9602만원 가운데 섬유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9725억6100만원으로 약 23%를 차지했으며, 총 영업이익2205억4462만원 중 섬유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526만9659만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23.89%를 차지했는데 섬유사업 부문에서 Spandex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17%로 나타났다.

스판덱스의 가격은 폴리에스터 원사에 비해 수출가격은 7.2배, 내수가격은 8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의 가격경쟁 때문에 2004년 상반기 수출가격은 2003년에 비해 5.9%, 국내 화학섬유 생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내수가격은 6.1%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폴리에스터 원사는 원가상승 압박에 의해 내수가격은 13.7%, 수출가격은 각각 10.2% 인상됐다.

섬유사업 부문의 2003년 영업이익은 2002년 대비 35.9% 감소했으며, 2001년 대비 2002년 영업이익도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9/30>